

# 전남도, 농촌인력난 해소 '외국인력 전담기구' 설치 시급

### 기초지자체 도입·고용지원에 한계 선별·채류·출국업무 전담기관 필요 올 1763명 외국인노동자 긴급 수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도내 농어촌을 위해 외국인력 전담 도입기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이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 지원까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MOU)부터 선별·채

류·출국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8개 시·군 1763명으로 확정해 조만간 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

개 시·군에 1만7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철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

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 체류 48명,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일선 시·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개선된 제도가 중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효과를 냈지만,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 등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 품목별 인력수요를 조사 중이

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며,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제도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력배정 배제 등 과도한 제재보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수박 출하**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 개장을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금곡마을 무등산 인근 노지에서 작목반 회원들이 무등산 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일 반 수박 크기(10kg)에 비해 2~3배 큰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으며 단맛과 과육의 감칠맛이 일품이다. 5일부터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8kg에 3만원, 16kg에 11만원, 18kg에 14만원이다. 직판장 개장은 5일부터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시, 중장기 평생교육 밑그림 그린다

### 민선 8기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장애인 평생교육 구축

광주시가 민선 8기 평생교육도시 비전을 제시할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국가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민선 8기 평생교육 공약과제를 비롯해 광주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현황,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등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광주다운 비전과 정책 실행과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도록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맡아 추진한다. 기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됐던 장애인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독자적 영역으로 차별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계획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 지역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자문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수행한다. 김순숙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와 실태를 꼼꼼히 분석해 '기회 도시 광주'다운 평생교육 진흥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강기정 광주시장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취임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이 4일 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 제12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강기정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6월까지 3년간 활동에 들어갔다. 강 신임 협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지원을 위한 강화와 지자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회의 제도약을 다짐했다. 그는 또 후한 옥내급수관 개량과 급수설비 제도 개선 등 수도물 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해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신임 협회장은 지난 7월14일 열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협회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같은 달 22일 한국상하수도협회 임시총회에서 선출이 최종 승인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10년간 인공부화 꼬막 유생 10억 마리 방류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이상기후에 생산량 급감

이상기후, 갯벌 오염, 남획 등으로 전남도내 꼬막 생산량이 갈수록 급감하면서 어민 소득 감소, 소비자 가격 대폭 상승 등이 우려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갯벌 유희지에 앞으로 10년간 인공부화 꼬막 유생 10억 마리를 방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전남의 꼬막 생산량은 1970년 2만3193t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1990년대 말에는 중국에 1만여 t 가량을 수출할 정도로 양식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량이 크게 줄어 2010년 도내 생산량은 3784t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1년 1604t으로 재차 반토막 났고, 2016년에는 244t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56t으로 사상 최저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위기에 처한 꼬막 자원의 회복을 위해 자체 기술로 생산한 건강한 인공부화 유생 10억 마리를 장흥 용산면 남포여촌계 해역에 시험 방류했다. 꼬막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민 밥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먹거리였으나, 수년 전부터 자취를 감춰버려 새꼬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원은 지난 6월 성장이 빠르고 환경 변화에 강한 꼬막 우량품종 개발에 나섰다. 고위도 해역인 총남산 모래와 전남산을 교배해 인공종자 6만 마리를 자체 생산·시험 양식해 상위 3% 선두그룹을 선발하는 중간 육성 시험을 추진했다. 이는 적극적인 자원회복을 위해 50일 이상 키워야 하는 침착기(1~2mm) 치패까지 생산하지 않고, 부화 직후 7일 이내의 부유유생(80~100µm 전후) 단계에서 자연 서식지에 대량으로 집중 방류하는 방식의 자원회복 모니터링 시험 연구다. 앞으로 10년간 진행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시민 무더위 극복 21개 사업에 310억원 지원

광주시가 시민들의 무더위 극복 및 시민 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불가·고급리 속에 폭염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이같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지원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국비 245억원과 시비 52억원, 구비 14억원 등 총 31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1식당 1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인상(월 1만5000원)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추가지원(월 10만원)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 ▲고려인마을 이주민 냉방용품 전달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설노동자 열질환 예방 홍보 ▲지하철 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